

수소 · UAM · 우주산업 관련 주간정책 동향

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중앙부처	[법제처]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법률안 연내 국회 제출 (01.23.) - ‘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’은 수소의 본격적인 에너지원 활용에 대비해 사업 분야별 인허가 체계와 수소거래소 신설 근거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
	지방자치단체	[충청북도] 신재생에너지분야 투자 6,726억원.. 20개사업 추진 (01.23.) - 충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20개 사업(6,726억원 규모)을 추진하고 있으며, 이 중 7개 공모사업의 규모는 1,026억원임 - 특히, 2023년 수소 분야에서만 800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을 확보해 큰 성과 달성 ☞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 및 충전소 구축사업(210억원), 수력 기반의 충주댐 그린수소 생산사업(200억원),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(241억원) 등 - 충북은 대규모 화학단지가 부재한 지역으로 부생수소 및 천연가스 기반 수소 생산이 어려운 상황으로, 이에 바이오가스 및 암모니아 기반 1일 1톤의 수소생산·활용으로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공급
	지방자치단체	[충청북도 청주]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 건설을 위한 MOU 체결 (01.23.) -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청북도, 청주시, 수소융합얼라이언스ฯ와 함께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인프라 확장을 주도할 ‘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’(가칭) 건립 업무협약(MOU)을 체결 -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정상운전을 목표로 충북 청주시 오송읍 봉산리 오송KTX역 인근에 대지면적 1541㎡, 건축 연면적 4371㎡, 지상7층 지하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 -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는 정부 및 지자체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수소·가스 분야 정책·연구·교육 및 관련 세미나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
UAM	중앙부처	- (해당없음)
	지방자치단체	[서울특별시] 수도권(여의도 공원) UAM 실증사업 및 버티포트 구축 계획 발표 (01.17) - UAM 상용화 이전 기체·관제·통신 등 운영 전반의 안전성 검증 - 추진일정 → '24.07 ~ '25.08 : 도심 (수도권) - 실증노선 → (서울시) 김포공항~여의도(18km), 잠실~수서역(8km) (경기·인천) 킨텍스~김포공항(14km), 드론시험인증센터~계양신도시(14km)
	지방자치단체	[전라남도 고흥군] UAM·드론 등 항공산업으로 고흥의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 육성 (01.18) - 고흥군, 지역 경쟁력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고흥만 일원 항공 인프라 시설 기반 UAM·드론 항공산업을 지역 100년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육성 - 고흥형 UAM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모니터링 기반 구축 시설과 파일럿 양성센터 구축 - 가상현실 체험존 운영 등 UAM 산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비 확보 등 장기적으로 UAM 산업 육성 계획
		[대구광역시] 대구광역시-한국항공우주산업(KAI) 간 AAM* 모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(01.18) - 한국형 AAM 산업생태계 조성'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(MOU) 체결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이번 협약을 통해 KAI와 대구시는 정부 주도 연구개발 사업에 공동 대응, AAM 비행체 핵심구성품인 모터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☞ KAI는 UAM과 RAM 등 AAM 교통망에서 운송수단으로 사용될 AAV(Advanced Air Vehicle, 미래항공기체)의 성능, 제원 및 한국형 AAM 산업육성 로드맵 수립 계획 ☞ 대구는 2023년 7월 선정된 ‘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’를 자동차에서 AAM까지 확대, 모터 개발 및 구성품 단위 인증지원 사업, 공공형 운항사업 모델 기획 추진 * AAM(Advanced Air Mobility, 미래항공모빌리티): 단거리 수송에 주로 사용될 UAM과 장거리 수송까지 가능한 RAM(Regional Air Mobility, 지역간 항공교통)을 포괄하는 개념
UAM	지방자치단체	[인천광역시] 인천 행정체제 개편, 서구·검단구 분리 및 UAM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개발 예정 (01.24) - 2026년 인천광역시 기존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 분리 예정이며, 검단구는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산업구조 재편 및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산업생태계 발전 추진 - 서구에서 독립·분리될 예정인 검단구 지역 내 UAM 시험장 설치 및 인프라 구축(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), 2025년 아라뱃길 UAM 노선 상용화 계획
우주	중앙부처	[국무회의]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(01.24.) - 23일 국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의결 - 과기정보통신부 법 시행령 마련 진행 후, 5월 말경 우주항공청 개청 예상
	지방자치단체	- (해당없음)

□ 국가 및 지방연구기관 연구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국가연구기관	- (해당없음)
	지방연구기관	- (해당없음)
UAM	국가연구기관	- (해당없음)
	지방연구기관	- (해당없음)
우주	국가연구기관	[항우연] 항우연, 세계 최장거리 전기 무선 전송 성공 (01.22) - 1.81km 거리의 무선 전력 송신에 성공하여 기존 최장기록인 NASA의 1.5km를 갱신 - 무선 전력 전송은 우주의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구로 보내는 우주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술
	지방연구기관	[항우연] 우주항공청 개청 대비 특별반 운영 (1.22.) - 항우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여 행정과 기관 운영을 검토할 특별반 출범 - 본원 청사는 당분간 대전에 유지하겠다고 밝힘

□ 민간 및 기타(논문 등) 동향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수소	공기업/민간기업	[현대자동차] '수소사회 전환' 가속화 ... 하루1톤 생산거점 첫삽 뜬다 (01.23.) - 현대차는 충북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부지(면적 7500㎡)에 수소 생산 거점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- 유기성 폐기물인 하수 슬러지에서 발생한 메탄을 정제해 바이오가스로 만든 뒤 수소 에너지 자원화를 통해 하루 500kg의 수소 생산능력 확보 - 이는 수소 승용차인 넥쏘를 100대 충전할 수 있는 양이며, 추후 생산시설을 증축해 2027년까지 수소 생산능력을 하루 1톤으로 두 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[SK, 한화, 두산] 청정수소 입찰에 사활 거는 기업들 (01.19.) - 미래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요 분기점이 될 「청정수소 발전소」 사업자 입찰에 주요 대기업(SK E&S, 한화임팩트, 한화파워시스템, 두산퓨리셀 등)들 대거 참가할 예정 - 정부는 올해 3,500GWh(상업운전 2027년), 내년 3000GWh(2028년) 규모의 수소 발전 용량을 구매한다는 계획 - 청정수소 발전은 수소를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업으로, 청정수소 사업권을 따 낸 곳을 향한 납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
	대학교	[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] 황지현 교수, 일본에서 액화수소충전소 과제 수행결과 발표 (01.22.) -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(KENTECH) 황지현 교수 연구팀이 ‘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연계 안전성 평가·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과제’ 2차년도 결과를 도쿄에서 열린 ‘International Forum on Clean Energy Engineering(FCEE 2024)’ 에서 발표 - 액화수소 충전소는 기체수소 충전소 대비 상압 저장을 통한 안전성 확보, 압축기 대신 극저온 펌프를 사용함에 따른 소요 전력의 획기적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, 충전 속도와 부지면적을 각각 1/6, 1/3 수준으로 절감 - 모빌리티 분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의 중요성이 대두
	해외	[핀란드 Hycamite] 유럽 최대 규모 청록수소 생산시설 착공 (01.19.) - 핀란드 코콜라(Kokkola)에 본사를 둔 Hycamite TCD Technologies(이하 ‘Hycamite’)가 유럽 최대 규모의 청록수소 생산시설을 착공 - 코콜라산업단지(KIP)에 들어서는 이 시설은 메탄 열분해를 적용한 청록수소를 연간 2,000톤 생산할 수 있는 실증시설로, 카본블랙 6,000톤을 추가로 생산 - Hycamite의 기술은 수전해 수소생산에 드는 에너지의 13% 정도에 불과하며, 특히 수소 생산과 동시에 탄소(C)를 고체 형태로 포집 가능
UAM	민간기업	[KT 네트워크 연구소] 양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UAM 관제 기술 개발 계획 (01.19) - UAM 상용화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신속·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양자 네트워크 도입 필요성이 제기 - UAM을 동시 추적해 짧은 시간에 각 차량에 최적 경로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며, 양자 데이터 통신망과 관련한 기술 수준을 높이고 있는 단계 - 양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AI 기술을 UAM 산업에 적용시켜 수십만대의 UAM 관리·통제 가능
	대학교	- (해당없음)
	해외	- (해당없음)
우주	민간기업	[한화시스템] 저궤도 위성통신시장 진입 (01.24.) - 한화시스템은 ‘유텔셋 원웹’에 3억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 유통공급 계약을 체결 - 현재 정부의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 절차 진행과 동시에 군 통신망과 연동 예정 [켄코아에어로] IMM인베스트로부터 1,300억 원 유치 (1.19.) -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분야 글로벌기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사가 신규 투자유치에 성공 - 켄코아는 에어버스, 록히드마틴, 노스롭그루만, 보잉 등 항공, 방산, 우주산업 글로벌 티어 1 기업의 공급사이며, 팬데믹으로 우주산업이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두 자리 수 이상의 안정적 고성장을 기록
	대학교	- (해당없음)
	해외	[일본] 일 탐사선 ‘슬림’ 세계 다섯 번째로 달 착륙 성공 (01.23.) - 일본의 달 탐사선 ‘슬림’은 달 앞면 적도 인근 충돌분지 ‘시오리’(남위 13도)에 착륙했으나 현재 태양전지의 방향 문제로 작동 정지 상태

분야	구분	제목 및 주요내용
		- 슬림의 목표는 목표 지점 100m 이내에 착륙하는 정밀 착륙 기술 검증이었으나 현재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는 1개월 가량 소요
		[유럽] 유럽우주국(ESA), 달, 금성 등 대규모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한국 참여 희망 (01.22.) - 과기정통부 조성경 제1차관이 지난 19일 유럽우주국(ESA), 프랑스 국립우주센터(CNES), 우주 스타트업 엑소트레이를 방문하여 우주 협력 추진 방안 논의 - 한국과 유럽 우주 협력의 구체적 아이템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
		[이란] 이란 첫 위성 발사성공 (01.21.) - 이란은 ‘소라야 위성’을 고체연료 발사체 ‘카엠100’을 통해 지상 750km 궤도에 안착 성공 - 현재 이란이 실제 위성 발사에 성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미국 등 제3자 확인 불가
		[튀르키예] 첫 우주인 탑승 민간 우주선 ISS로 발사 (1.19.) - 미국 우주기업 액시엄과 스페이스X가 합작한 프로젝트에서 튀르키예 최초 우주비행사와 이탈리아, 스웨덴 비행사 등 4명이 탑승한 우주선 ‘크루 드래건’이 ‘팰컨9’ 발사체를 통해 국제우주정거장(ISS)으로 발사 - 20일 오전 5시 15분 ISS 도킹 예정으로 14일간 우주에 머물며 극미중력 연구와 기술 시연 임무 수행

□ 기타(포럼, 세미나, 토론회 등)

주제	기관명	제목 및 주요내용	개최일자
수소		- (해당없음)	
UAM	산업통상자원부 등	[산업통상자원부 등] 2024 드론쇼 코리아 (03.06-03.08) - UAM·드론·항공우주 등 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전시회 및 컨퍼런스 - 주최: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국토교통부, 국방부, 부산광역시 - 주관: 벅스코(BEXCO), 사단법인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 - 장소: 벅스코(BEXCO) 제1전시장/컨벤션홀	03.06 ~ 03.08
	부산광역시	[부산광역시] 2024 부산 모빌리티쇼 (06.27-07.07) - UAM 및 모빌리티 하드웨어(승용차, 상용차, 전기차, 수소차), 자율주행 차량, 부품 및 악세서리, 배터리 등 모빌리티 전 분야 전시 행사 - 주최: 부산광역시 - 주관: 한국 자동차모빌리티산업 협회, 한국 수입자동차 협회, 한국 자동차 산업 협동조합 - 장소: 벅스코(BEXCO) 본관 전시장 전홀 및 신관 1층 전시장	06.27 ~ 07.07
우주	항공우주협회 항공우주학회	[항공우주협회/항공우주학회] 2024년도 항공우주인 신년 인사회 (01.19.) - 장소: JW메리어트호텔(서울) - 주요내용: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에 대한 이후 과제, 항공제조, 첨단 항공모빌리티(AAM), 우주분야 미래 주력 사업 개발, 민간 주도 ‘뉴 에어로스페이스’ 시대로의 전환 필요성	1.19.